

Saint-Exupéry의 人間과 神

裴 基 烈*

- I. 序 論
- II. 1. 人間關係
- 2. <人間>의 生成
- 3. 기독교 神에의 거부
- 4. 자기信仰의 발전
- 5. 神에의 향수
- III. 結 論

I

무릇 인간이 생각을 할줄 알게 되고 표현을 할줄 알게 되기 시작한 이래 <우리를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命題는 수많은 철학자 예술가 종교인 학자들에 의해 思考되어 왔고 표현의 수단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생텍쥐페리(이하 생텍스라 칭함)가 이 명제에 관해 우리들의 주목을 끌기에 족한 작품들을 남기고 있다.

비행 조종사가 자기의 職分 *métier* 인 그는 평화시에는 항공우편기를 조종하였고 戰時에는 조국 프랑스를 위하여 정찰기를 조종하다가 44세를 일기로 하늘에서 승화한 사람이다. 그의 人生은, 자기가 創出한 人生觀을 몸소 행동으로 읊었던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값진 人生을 영위한 사람이었고 참다운 지성인이었다. 무한한 우주공간과 地上을 연결하는 그의 行動半徑이 말해주듯 그의 人間觀은 그만큼 巨視的이었고 綜合的인 것이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지구별의 이 마을 저 마을, 저기 우연히 生命의 씨앗이 날려와 이끼처럼 번식하여 인간의 마을을 이루고 사는 모습. 그 인간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또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인간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일까. 다분히 종교적인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사색의 폭을 그는 하늘을 날으는 동안 얼마든지 넓게 펼쳐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남기고 간 작품들이나 수첩의 메모, 편지 속에 담긴 그의 人間觀은 어떤 것인지 따라서 왜 그의 文學은 이미 현대의 古典이 되고, 오늘날 수많은 그의 研究家를 낳게 하는지 그 원인을 究明해 보자.

* 경희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II

1. 人間關係

생텍스의 人間개념은 무엇보다 먼저 人間關係에서 나온다. 생텍스 특유의 humanisme 또한 이 人間關係에서 나온다. 人間關係는 인간의 운명에 관한 連帶性 Solidarité 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人間關係는 우선 공통된 행동에서 태어나는 것인 즉, 인간은 métier(召命·職分)에 따라 참여함으로써 <나>와 <남>이 결합되고 <나>와 事物, <나>와 世界가 결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人間關係는 métier 의 倫理的인 조건인 것이고, 생텍스의 行動에 관한 Thème 또한 바로 이 人間關係의 Thème 가 되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métier 를 실행함으로써 점차 연계 réseau du noeud 를 만들어 나갈때 비로소 사람 homme 이 되는 것이다.

L'homme n'est qu'un noeud de relations. Les relations comptent seules pour l'homme.¹⁾
(인간이란 관계의 한 매듭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관계만이 중요하다.)

인간이 사회라는 유기체 속의 한 분자인 이상 서로 관계하는 하나의 매듭임에 틀림없으나 그 가운데서도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같은 職分에 종사하는 동료들 간의 우애관계는 각별하고도 숭고하기조차 하여서 생텍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찬미하고 있다.

Il n'est qu'un luxe véritable, et c'est celui des relations humaines.²⁾
(참다운 사치란 人間關係의 사치일 뿐이다.)

職分이 묶어주는 으뜸가는 관계는 동료애이다. 그가 처음으로 동료애를 느낀 것은 1923년 Orly 에서의 조종술 시험비행 당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견된다.

J'ai cependant été piloter à Orly dimanche. J'ai fait un bien beau vol. Maman, j'adore ce métier. (. . .) Et puis cette camaraderie charmante en bas, sur le terrain. On dort couché dans l'herbe en attendant son tour. On suit des yeux le camarade dont on attend l'avion et l'on raconte des histoires. Elles sont toutes merveilleuses. . . .³⁾

(그런데 나는 지난 일요일 오르리에서 비행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비행이었지요. 어머니, 나는 이 직분을 사랑합니다. (….) 그리고 저 아래 땅 위에 있는 상냥스런 동료들. 더러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풀밭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더러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료쪽으로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감탄할만한 친구들이죠…)

1) Saint-Exupéry: Pilote de Guerre, Pléiade, p. 347
2) Sainy-Exupéry: Terre des Hommes, Pléiade, p. 158
3) Saint-Exupéry: Lettre à sa mère, p. 128

첫 작품 *Courrier Sud*에서는 주인공 Jacques Bernis가 단 하나의 여자 친구밖에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세상을 묶고 있는 관계의 매듭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쓰라릴 뿐이라는 범주에 머문다. 그러나 다음 작품 *Vol de Nuit*에서의 항공회사 지배인 Rivière와 조종사들 간의 紐帶感은 매우 깊다.

Pourtant dans cette lutte une silencieuse fraternité liait, au fond d'eux-même, Rivière et ses pilotes. C'étaient des hommes du même bord, qui éprouvaient le même désir de vaincre.⁴⁾

(하지만 이 투쟁 속에서 말없는 兄弟愛가 엮어지는 것이다. 리비에르와 조종사들 간에, 그들의 심층에서, 그들은 승리하고자하는 똑 같은 욕망을 맛보는 같은 항로의 사람들인 것이다.)

리비에르는 그의 표현대로 <밤 하늘 전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조종사들은 夜間航路開拓期에 밤이 잠추고 있는 대자연의 온갖 횡포, 비바람이라든가 눈보라, 태풍들과 맞붙어 싸워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인류에게 현납할 또 하나의 文明인 夜間飛行의 가능성을 확고히 해야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한 나무의 가지들> les branches d'un même arbre인 것이다. 여기서 結實되는 위대한 동료애는 우리가 쉽게 수궁하게 된다.

La grandeur d'un métier est, peut-être, avant tout, d'unir des hommes.⁵⁾

(직분의 위대함이란 어쩌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을 묶어주는데 있는지 모른다.)

동료애에 관한 한 作品 *Terre des Hommes*는 사실이지 <동료애의 書(Un livre de la camaraderie)>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冊 속에서는 모든 동료가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위험을 통해 단련된다. 마치 Rivière가 자기의 모든 조종사나 비행기의 정비공,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엄한 규칙을 세워 단련하듯이, Rivière에게 있어 <단련한다는 것> forger은 날밀탐을 반죽해서 거기에 정신력을 불어넣어주는 것과 같다. 정비공에게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케 하고 조종사에게는 대자연의 악천후와 싸워 이기게 하는 정신력을. 그래서 자기에게 저항하는 장애물과 대결할 때 자기 속에 태어나는 새로운 인간. 그 인간을 具現하자는 것이다. 가령, 航路개척자의 영웅 Mermoz가 가슴에 잔뜩 승리의 기쁨을 안고 험준한 안데스산을 넘어 칠레 쪽으로 향할 때, 누군가가 <그 따위 장사꾼의 편지 한장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Mermoz는 어깨를 으쓱하며 씩씩 웃어보이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썩쩍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La vérité, c'est l'homme qui naissait en lui quand il passait les Andes.⁶⁾

(진리란, 그가 안데스 산맥을 넘었을 때 자기 속에 태어나고 있었던 사람 그것이다.)

4) Saint-Exupéry: *Vol de Nuit*, *Piéiade*, p. 111

5) *Terre des Hommes*, p. 158

6) *Ibid.*, p. 252

동료애에 관한 한 썩빡스는 일체의 사사로움을 배제한다. 그에게 있어 동료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다같이 찾아내고자하는 같은 봉우리를 향해, 같은 끈나풀에 묶여져있지 않다면 그것은 동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⁷⁾

사막 위에, 산맥 위에, 바다 위에 칠흙같은 밤 하늘에 航路의 다리를 놓느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 죽어갔던 Terre des Hommes 의 주인공들(Mermoz, Guillaumet. St-Ex)이나 그밖의 동료들. 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만난다는 것은 곧 또다시 출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룩해 놓은 <航路>의 文明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중 누군가가 죽어가면 그 슬픔은 엄청난 것이다.

Rien, jamais, en effet, ne remplacera le compagnon perdu. On ne se crée point de vieux camarades. Rien ne vaut le trésor de tant de souvenirs communs, de tant de mauvaises heures vécues ensemble, de tant de brouilles, de réconciliations, de mouvements du coeur. On ne reconstruit pas ces amitiés-là.⁸⁾

(정말이지 잃어버린 동료를 대신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오랜 동료를 새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슬한 공동의 추억이며, 함께 나누었던 어려웠던 시기, 不和와 和解, 마음의 동요, 이보다 값진 寶貨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우정을 다시는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哀歡은 또, 사고로 불시착한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 여닐곰 동료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막 한가운데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며 촛불을 밝혀놓고 모여 앉은 情景에서도 보여진다.

Et je ne sais ce qui donnait à cette nuit son goût de Noël. Nous nous racontions des souvenirs, nous nous plaisantions et nous chantions.

Nous goûtions cette même ferveur légère qu'au coeur d'une fête bien préparée. Et cependant, nous étions infiniment pauvres. Du vent, du sable, des étoiles. Un style dur pour trappiste. Mais, sur cette nappe mal éclairée, six ou sept hommes qui ne possédaient plus rien au monde, sinon leurs souvenirs, se partageaient d'invisibles richesses.⁹⁾

(그런데 그 무엇이 이 밤에다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주었는지 나는 모른다. 우리는 서로 추억을 이야기하였고 농담을 주고 받았으며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잘 차려진 축제의 한가운데에 있기라도 하듯 가벼운 흥분마저 맛보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가난하였다. 바람과 모래와 별들뿐. 트라피스트 교파의 수도사들에게나 어울리는 엄격한 생활 양식이었다. 그러나 이 칙칙한 식탁보 위에서, 이 세상에 자신의 추억을 제외하고는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예닐곱의 사나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寶貨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寶貨, 그것은 동료애이자 같은 봉우리를 향해 나란히 바라보는 마음(信念)인 것이다.

7) Ibid.

8) Ibid., pp. 157-158

9) Ibid., p. 159

Métier 로 묶여진 人間의 紐帶意識은 작품 *Pilote de Guerre* 에서도 드러난다. 二次大戰 初期 敗走의 고뇌 속에서도 정찰비행의 임무를 맡은 2/33 정찰부대의 동료들을 두고 생텍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Mon amour du Groupe n'a pas besoin de s'énoncer. Il n'est composé que de lien. Il est ma substance même. Je suis du Groupe. Et voilà tout.¹⁰⁾

(部隊에 대한 나의 사랑은言及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유대로 형성된 것이니까. 그것은 나의 本質이기도 하다. 나는 部隊의 것이다.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여기서도 그들의 행동의 목적은 자기를 초월한, 자기 밖에 위치하고 있다. 그들의 職分이 요구하는 召命에 따라 肉身을 Arras 上空에 맡겼을 때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기 속의 또다른 인간이 조국 프랑스를 구출한다는 목적이다. 그리고 그 때의 戰友들은 兄弟愛 Fraternité humaine 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Je comprends l'origine de la fraternité des hommes. Les hommes étaient frères en Dieu. On ne peut être frère qu'en quelque chose. S'il n'est point de noeud qui les unisse, les hommes sont juxtaposés et non liés. On ne peut être frère tout court. Mes camarades et moi sommes frères "en" le Groupe 2/33. Les Français "en" la France.¹¹⁾

(나는 兄弟愛가 어디서 起源하는 것인지 안다. 하느님 속에서는 모두가 형제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무엇 속에서만 형제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을 묶어줄 끈나풀이 없다면 그들은 나란히 並列되어 있을 뿐이지 묶여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형제가 되어질 수 없다. 나의 동료들과 나는 2/33 비행대 속에서 형제들인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속에서 형제인 것이다.)

兄弟愛의 개념은 어려운 시기에 나누어먹는 한 조각의 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는 빵 덕분에 우리는 빵 속에서 인간공동체의 도구를 알아내기에 이르렀고, 이마에 땀을 흘려 벌어야 하는 빵 덕분에 우리는 빵 속에서 작업의 위대한 모습을 알아내는 것을 배웠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나누어 먹는 빵 덕분에 우리는 빵 속에서 자선의 본질적인 매개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을 배웠다.」¹²⁾ Citadelle 의 父王 Caïd 에 의하면 자선은 <作業의 分擔>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선은 協力을 의미한다.¹³⁾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塔을 세우고자 할 때 그들은 형제가 되는 것이다.¹⁴⁾ 생텍스가 지닌 文明의 위대함이란, 「한 사람의 매물된 鑛夫를 구해내기 위하여 1백명의 광부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데 있다.」¹⁵⁾ 그들은 <人間>(神性を 지닌 인간)을 구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協力は 자선이고 자선은 회생을 의미

10) *Pilote de Guerre*, p. 356

11) *Ibid.*, p. 375

12) *Ibid.*, p.p. 362-363

13) Saint-Exupéry: *Citadelle*, *Pléiade*, p. 539

14) *Ibid.*, p. 542

15) *Pilote de Guerre*, p. 376

한다. 兄弟愛란 오직 희생으로서만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제애는 자기 보다 훨씬 넓은 것에 공동으로 희생하는 데에서 맺어지는 것이다.¹⁶⁾

協力은 또한 參與의 개념이다. 썩펙스는 항상 증인의 역할을 두려워했다.

Que suis-je, si je ne participe pas? J'ai besoin, pour être, de participer. Je me nourris de la qualité des camarades, cette qualité qui s'ignore, parce qu'elle se fout bien d'elle-même, et non par humilité. Gavoille ne se considère pas, ni Israël. Ils sont réseau de liens avec leur travail, leur métier, leur devoir.¹⁷⁾

(내 만일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가 뭐란 말이나? 나는 존재하기 위하여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는 동료들의 자질에서 자양을 얻는데 그것은 알려지지 않는 자질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가보알도 이스라엘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작업과 직분과 의무로 묶여진 그물인 것이다.)

단단한 끈나풀로 묶여진 紐帶人間의 자질 *qualité*은 앞서 Mermoz 나 Guillaumet 그리고 썩펙스 자신, 그리고 또 여기 가보알이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기 속에 잉태한 또 다른 人間>이다. 우리는 이 人間에다 팔호를 씌워(<人間>) 凡常한 사람들과 구별하자. 웬고하니 大聖堂을 구축하고 있는 한덩이 돌과 길바닥에 굴기다니는 돌맹이와는 의미가 다르듯이, 이 <人間>이야말로 범상한 個體들과는 달라서 人類의 文明건설에 要石이 되는 썩펙스 人間像의 理想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究明하려는 人間 또한 바로 이 <人間>인 것이다.

썩펙스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하여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는 항공우편 조종사로서 또 전시조종사로서 자기의 전신을 송두리째 바쳤던 사람이다. 특히 야간항로개설이나 패전중의 정찰 임무 같은 경우에는 번연히 잃어버릴 목숨인줄 알면서 그는 자기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모두 바쳤던 사람이다. (J'ai engagé ma chair dans l'aventure. Toute ma chair. Et je l'ai engagée perdante. J'ai donné tout ce que j'ai pu à ces règles du jeu.)¹⁸⁾ 그러한 그인지라 참여하지 않고는 자기 속의 <人間>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고, 참여하지 않고는 孤獨에서 탈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린왕자가 지구별 아프리카의 모래밭에 처음 내려와 사람을 찾아 다닌 끝에 「나는 의롭다」¹⁹⁾고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울리던 그 고독을 탈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人間>의 生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활주변에서 소시민적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夜間飛行」의 파

15) Pilote de Guerre, p. 376

16) Ibid., p. 380

17) Ibid., p. 354

18) Ibid., p. 355

19) Saint-Exupéry: Le Petit Prince, Pléiade, p. 465

비행 부인처럼 「저녁 식탁의 밝은 램프의 이름으로, 자기의 육체를 요구하는 육체의 이름으로」²⁰⁾서 「저녁나절 야외음악당 주변을 서성거리는 소시민들」²¹⁾처럼. 그러나 어느날 함께 일 하던 광부 하나가 흙더미 속에 매몰되어 가는 것을 본다. 이를 본 동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고자 뛰어든다. 그때 모습을 드러내는 인간의 崇高한 정신.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4백 5일을 헤메며 기아와 피로와 갈증과 싸우느라 죽음 직전에 있는 썩텡스 자신과 동료 Prévot에게 물 한모금을 주어 生命을 건지게 했던 Libye 사막의 隊商²²⁾과 같은. 우리가 이 소론에서 探究하고 있는 썩텡스의 人間理想型은 바로 이러한 人間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호를 씌워 <人間>이라 表記한 인간. 자기의 내부에 生成된 神性을 지닌 人間. 썩텡스는 이를 Dieu(神)의 大文字와 마찬가지로 大文字 H로 시작하는 Homme(인간)라 표기해서 小市民的의 凡常한 인간(homme)과 구별한다. 神은 完成이자 絶對요, 不滅이자 永遠한 것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썩텡스가 찾고 있는 理想人間은 그 神性을 지닌 人間 즉 인간 속에서 神을 구현하는 노력이다.

Durant des siècles ma civilisation a contemplé Dieu à travers les hommes. L'homme était créé à l'image de Dieu. On respectait Dieu en l'homme. Les hommes étaient frères en Dieu.²³⁾

(여러 世紀에 걸쳐 나의 文明은 인간들을 통해 神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인간은 神의 모습을 본떠서 창조된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 속의 神을 숭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神 속에서는 형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人間>만이 大聖堂을 구축하는데 쓰여질 한덩이 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大聖堂은 永遠의 상징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잉카文明의 山上의 돌기둥, 아크로폴리스의 돌기둥 殘骸들처럼 大聖堂을 떠받치고 있는 돌들과 돌무더기와는 다른 것이다. 前者가 Homme의 共同體라면 後者는 homme의 집단인 것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이다. 이러한 돌, 즉 個體는 俗物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凡夫다. <人間>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육체를 참다운 자기, <眞我>로 아는 사람이다. 육체가 무너질 순간에 가서야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지금껏 자기의 육체에 집착해온, 찢겨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外科醫 內科醫로 끌고 다니며 돌보아져온 자신이 얼마나 시시한 존재였는가 하고 놀라는 것이다. 그 육체의 주인인 精神(썩텡스의 Esprit,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 Coeur이라 해서 때묻지 않은 오롯한 마음자리를 佛性자리라고 한다.)이 하나의 大聖堂을 구축하겠다는 높은 理想, 불길 속에 험싸인 이웃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는 높은 人間性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이미 길에 굴러다니는 한갓 돌덩이가 아닌 것이며, 육체 따위는

20) Vol de Nuit, p. 120

21) Ibid., p. 92

22) Terre des Hommes, 7章 참조

23) Pilote de Guerre, p. 373

한것 하인배에 불과하고 높은 理想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道具에 불과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Ma civilisation repose sur le culte de l'Homme au travers des individus. Elle a cherché, des siècles durant, à montrer l'Homme, comme elle eût enseigné à distinguer une cathédrale au travers des pierres. Elle a prêché cet Homme qui dominait l'individu. . . .

Car l'Homme de ma civilisation ne se définit pas à partir des hommes. Ce sont les hommes qui se définissent par lui. (. . .) Il faut restaurer l'Homme. C'est lui l'essence de ma culture. C'est lui la clef de ma Communauté.²⁴⁾

(나의 文明은 個體들을 통하여 <人間>을 존중하는데 있다. 나의 文明은 여러세기에 걸쳐 <人間>을 구현해 보이려고 노력해왔다. 한 채의 大聖堂과 돌무더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왔듯이. 나의 文明은 이 <人間>이 개체를 지배해왔음을 강론하였다...

왜냐하면 내 文明의 <人間>은 사람들에서부터 출발하여 定義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人間>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것이다. (…)<人間>을 부흥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 文化의 本質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共同體의 열쇠인 것이다.)

「夜間飛行」의 Rivière 은 평범한 個體들에다 精神力을 불어넣어 <人間>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조종사들과 정비공들, 사무직원들을 이끌고 <人間>의 共同體를 만들어 야간항로 개척이라는 새 文明 創造로 인류에게 공헌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이 공동목표를 향하여 그는 그들을 혹독하게 몰아부친다. 그가 생각하는 個體 individu, homme 란 <반죽을 해서 거기다 영혼을 불어넣어야하는 날 밀랍과도 같은 것>²⁵⁾이어서 단련 forger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Ces hommes-là sont heureux, parce qu'ils aiment ce qu'ils font, et ils l'aiment parce que je suis dur.²⁶⁾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내가 엄하니까 그 일을 사랑한다.)

「城砦」의 Caïd 가 말하듯, 나무란 서서히 하늘을 향해 솟아나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나무의 이 힘 Puissance 이 바로 Rivière 의 意志인 것이다. 자기가 엄한 규율로 부하직원들이 얻게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강력한 意志—前進하는 힘 (Des forces en marche) 말이다. Rivière 에 의하면 「人生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오직 전진하는 힘이 있을뿐」²⁷⁾이라는 것이다.

그 힘을 창출하는 단련에는, 그 <人間>生成에는 희생이 따른다. 야간비행중의 Fabien 이 태풍과 싸우다가 길을 잃고 기쁨이 떨어져 죽어간다. 그의 아내가 Ribière 을 찾아와 울부짖는다

24) Ibid., p.p. 372-373

24) Ibid., p.p. 372-373

25) Vol de Nuit, p. 92

26) Ibid.

27) Ibid., p. 127

Rivière의 번민이 시작된다. 「무엇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황금빛 聖殿에서 끌어내왔단 말인가」²⁸⁾하고, 「그러나 어느 날엔가 그 황금빛 성전은 숙명적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늙음과 죽음은 리비에르 자신 보다 더욱 무자비하게 행복을 무너뜨려버린다. 어쩌면 구해내어야 할 그 무엇, 보다 항구적인 그 무엇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다」²⁹⁾는 생각에 이어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이 古代 잉카族이 太陽神을 섬겼던 山上의 神殿이다. 산꼭대기에 우뚝 선 돌기둥. 영원을 상징하는 위대한 文明의 殘骸. 「그 어떤 냉혹한 이름으로, 혹은 그 어떤 기이한 사랑의 이름으로 고대 민족의 지도자는 산꼭대기에 그 신전을 쌓아올리도록 군중을 강제하여 그들 자신의 영원을 세워놓도록 하였을까? (……) 고대 민족의 지도자는 어쩌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을 갖지 않았을지도 모르나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처롭게 무한한 연민의 정을 가졌던 것이리라. 그것도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래 바다에 씻겨갈 種族의 죽음에 대한 연민 말이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사막도 파묻어버리지 못할 돌기둥들이나마 산꼭대기에 세웠던 것이리라」³⁰⁾는 결론에 이른다.

썩팩스는 덧없는 肉身 le corps périssable 을 永遠과 바꾸기를 그의 「手帖」이나 「戰時操縱士」에서 수없이 강조한다. 썩팩스는 肉身을 경시하고 육체 따위는 항상 하인배 취급한다. 육체는 한갓 행동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 육체의 주인은 항상 정신이다. 例의 〈반죽해야 할 날밀랍……〉 운운과 같은 이야기를 썩팩스는 그의 名著 「人間의 大地」 末尾에서 또 강조하고 있다.

Seule l'Esprit, s'il souffle sur la glaise, peut créer l'Homme.³¹⁾

(精神만이 진흙 위에 불어넣어질 때 〈人間〉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희생의 참다운 의미는 이 바꿈질에서 태어난다. 人生의 의미 또한 우리가 조금씩 그 무엇과 바꾸어가고 있을 때 드러나는 것³²⁾이다. 그 무엇이란 자기 속에 잉태하고 있는 〈人間〉이다. 그 〈人間〉이 生成하여 永遠을 구축하는 한덩이 돌이 되는 것이다.

Rendez-nous, disent avant tout les hommes, rendez-nous “éternité.” (. . .) Rendez-nous nos religions, serait-ce celle des fêtes de famille, des anniversaires, des patries, de l'olivier que j'ai planté et que mon fils cultivera . . . rendez-nous cela que nous sommes et qui dura au-delà de nous-mêmes. Permettez-nous de changer en pierres précieuses un corps périssable . . . ³³⁾

(“우리를 영원으로 돌려주세요”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한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종교를 돌려주세요. 그것은 가족의 잔치가 될 수도 있고, 생일잔치가 될 수도, 조국일 수도, 내가 심고 내 자식이 가꿀 올리브 나무일 수도 있을 것이다—우리들 자신을 초월하여 우리가 항구적으로 존재할 그 무엇으로 돌려주세요. 우리가, 덧없는 육신으로 귀중한 돌더미로 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28) Ibid., p. 121

29) Ibid.

30) Ibid.

31) Terre des Hommes, p. 261

32) Citadelle, p. 527

33) Saint-Exupéry: Carnets, Gallimard, pp. 72-73

썩뎡스가 그의 手帖에 메모해 두었던 이 절규 말고도 Essai 集 「전사조종사」에서 밝히고 있는 육신의 바꿈질을 보자.

Tes membres? Des outils. On se moque bien d'un outil qui saute, quand on taille. Et tu t'échanges contre la mort de ton rival, le sauvetage de ton fils, la guérison de ton malade, ta découverte si tu es inventeur!³⁴⁾

(너의 肢體는 뭔가? 그건 연장이다. 마름질할때 연장이 부서지는 것쯤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육신을 너의 적수의 죽음과 바꾸고, 네 아들을 구해내는데 바꾸고, 네 환자의 쾌유와 바꾸고, 만약에 네가 발명가라면 네 발명품과 바꾸는 것이다.)

또 「城砦」에서는 사람이 人間關係를 맺어주는 연줄의 그물을 이룩하고, 個體보다 크고 영구적인 領地를 이룩하기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것은 개인의 생명 보다 소중한 것이기에.

On ne meurt point pour des moutons, ni pour des chèvres ni pour des demeures ni pour des montagnes. Car les objets subsistent sans que rien ne leur soit sacrifié. Mais on meurt pour sauver l'invisible noeud qui les noue et les change en domaine, en empire, en visage reconnaissable et familier. Contre cette unité l'on s'échange, car on la bâtit aussi quand on meurt.³⁵⁾

(사람은 결코 羊이나 염소들을 위하여 죽지 않는다. 집이나 산을 위하여도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事物이란 아무런 희생의 대가 없이도 존속하게 마련이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묶어가지고 그들을 낮익고 친숙한 王國으로, 領地로 바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듭을 구하기 위하여 죽을 수는 있다. 그 왕국과 자기를 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때도 역시 그 왕국을 건설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보다 값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 희생 sacrifice의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썩뎡스 行動哲學의 本質이다. 그것은 <자기가 내세우고자 하는 存在에다 자신을 바치는 것>³⁶⁾이다. <領地를 위하여 자기의 일부를 희생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싸우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고생을 하는 사람만이 영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서 그에게는 영지에 대한 사랑이 생겨날 것이다. 영지란 이익의 총화가 아니다. 영지란 喜捨의 총화인 것이다.>³⁷⁾ 이와같은 희생을 두고 썩뎡스의 文明은 자선 charité이라 부른다. <人間>의 王國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바치는 희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La Charité véritable, étant exercice d'un culte rendu à l'Homme, au-delà de l'individu, impliquait de combattre l'individu pour y grandir l'Homme.³⁸⁾

(참다운 자선이란 개인을 초월해서 <인간>에게 바치는 尊崇의 실천이므로 <인간>을 개인 속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투쟁할 것을 요구하였다.)

34) Pilote de Guerre, p. 346

35) Citadelle, p. 555

36) Pilote de Guerre, p. 377

37) Ibid.

38) Ibid., p. 380

그 투쟁은 사하라 사막 위를, 대서양 위를, 밤하늘 한 가운데를, 안데스 산맥의 峻峰들 사이를 우편행랑을 신고 넘나들던 Mermoz의 투쟁이자 Guillaumet, Saint-Ex 자신의 투쟁이다. 또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삽질을 하고 나무를 손질해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홀가분하다는 류마티즘을 앓고 있는 그 정원사의 투쟁이다. 「그는 사랑으로 地上의 모든 나무와 대지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관대한 사람이며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며 위대한 領主였다. 그 사람이야말로 기묘매처럼 자기의 創造主의 이름으로 죽음과 싸울 때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이다.」³⁹⁾

Il faut donner avant de recevoir . . . et bâtir avant d'habiter. J'ai fondé mon amour pour les miens par ce don du sang, comme la mère fonde le sien par le don du lait. Là est le mystère. Il faut commencer par le sacrifice, pour fonder l'amour.⁴⁰⁾

(뭔가 받기에 앞서 주어야 한다—들어가 살기 전에 지어야 한다. 나는 나의 동포에 대한 사랑을 피를 줌으로써 이룩하였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젖을 줌으로써 이룩하듯이. 거기에 신비가 있는 것이다. 사랑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희생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4. 기독교 神에의 거부

여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썩텍스는 유년시절에는 기독교의 神을 믿었던 것 같다. 열 살 때 그는 르망 市에 있는 예수회가 경영하는 썩뜨 크로와 학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 천성 그대로 픽 앞전한 학생이었던 당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느날 아침 학원에서 성체배령을 했던> 점이며 <교리문답 시험에서는 5등>을 했노라고 썼다. 성체배령을 처음 받았을 때 그는 너무나 강한 신앙심을 느껴 종교적인 召命이 자기를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다 한다. 어린 나이라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나, 그 후 자라서 그의 나이 열 네 살에서 열 일곱까지도 스위스의 프리브르에 있는 당시 교육법의 새로움에 있어 뛰어난 마리아會가 경영하는 빌라 썩 장 학교에서 썩텍스는 카톨릭 敎徒로서 공부하였다. 그때 그는 보시에 학원에도 자주 드나들었는데 원장 쉬두 神夫로부터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나중에 1926년 라베끄에르 민간우편항공사에 첫발을 디디게 된 것도 이 神父의 추천에 의해서이다. 그는 이 학원의 다른 사제들과도 친근하게 지냈는데 사제들은 그의 천부적인 환상적 기질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한다. 그가 聖書에 매료되었던 것도 1918년의 일로서 그 때의 감격을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로 「어머님은 솔로몬의 <잠언>을 읽었습니까? 그리고 <雅歌>篇은 정말 멋진 것이죠. <전도서>를 읽었습니까?」하고 썼다.

말할 수 없이 그를 감동시킨 성서귀절은 특히 서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울림, 게다가 사회적인 의미가 그러했던듯, 서한집 「어머니에의 편지」에서는 또 「(……)성서를 약간 읽었음

39) Terre des Hommes, p. 167참조

40) Pilote de Guerre, p. 382

니다. 대단히 멋지고 간결한 문장이죠. 문체는 힘차고 詩情에 넘쳐 있습니다. 25페이지에 걸친 계율은 입법과 양식의 면에서 걸작입니다. 도저히 도덕적인 법이 적절하게 유효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라고 격찬하고 있다.

이렇듯 유년기에서 청년기의 초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라는 종교 분위기에서 자라왔고 공부도 해왔는가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는 기독교에 심취하기까지 했던 그가 어찌서 종교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 1918년 이후의 썩텍스 인생이나 문학은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썩텍스의 종교는 자기자신이 만들어낸 <人間>을 위한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에게서 기독교를 멀리하게 한 이유를 몇가지 究明해 보자. 첫째는 프리브르의 마리아슈가 경영하는 학교 시절, 그와 같이 공부하던 동생 프랑소와가 발작을 하다가 죽는(1917) 광경을 목격하면서 神의 不在를 절감했으리라는 가정이고, 둘째는 그의 「手帖」속에 들어 있는 몇가지 노트를 보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과학적인 진리 사이에는 일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思考다. 세번째 역시 「手帖」속의, 인간을 信者와 非信者로 뚜렷이 나누어 비신자들이 단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얽혀, 썩텍스의 마음속에 자리잡으려던 기독교 신앙에 逆作用을 하게되고 의혹을 낳게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우리는 그가 니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음도 찾아볼 수 있다.

Et lui, qui nous défendait de toutes ses forces contre le déterminisme, contre Taine, lui, qui ne voyait pas d'ennemi plus cruel dans la vie, pour des enfants qui sortent du collège, que Nietzsche, il nous avouait des tendresses coupables. Nietzsche . . . Nietzsche lui-même le troublait.⁴¹⁾

(決定論에 대해서, 메엔느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힘을 다해 우리를 지켜주던 그(철학선생)분이, 학교를 졸업하는 어린이들 앞에서 인생문제에 있어 니체 이상으로 잔인한 敵은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가증스런 애정을 고백했던 것이다. 니체...니체 바로 그 사람이 그분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것이다)

5. 자기 信仰의 발견

그의 처녀작이라할 「남방우편기」에 이미 니체 이야기가 이와같이 나오고, 이 記述은 학창시절의 회고담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가 철학교사를 통해 받아들인 니체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더구나 다음 작품 「야간비행」의 주인공 Rivière 이라는 人間像은 니체의 超人思想을 人物畫한 典型이라고 말한다해서 異論을 제시할 評者는 없을 것이기에 말이다.

많은 文學作品이 그러하듯, 「남방우편기」의 주인공 베르니는 작가 썩텍스 자신의 많은 모습을 投影시키고 있다. 그러한 베르니를 통해 썩텍스가 종교문제를 두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자. (「남방우편기」의 이 대목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說教者의 설교에 할애하고 있는 점

41) Saint-Exupéry: Courrier sud, Pléiade, p. 11

을 유의하면서)

Comme il passait près de Notre-Dame, il entra, fut surpris de la densité de la foule et se réfugia contre un pilier. Pourquoi donc se trouvait-il là? Il se le demandait. Après tout, il était venu parce que les minutes menaient ici à quelque chose. Dehors elles ne menaient plus à rien. Voilà: "Dehors les minutes ne mènent plus à rien." Il éprouvait aussi le besoin de se reconnaître et s'offrait à la foi comme à n'importe quelle discipline de la pensée. Il se disait: "Si je trouve une formule qui m'exprime, qui me rassemble, pour moi ce sera vrai." Puis il ajoutait avec lassitude: "Et pourtant, je n'y croirais pas."⁴²⁾

(그는 노트르담 寺院 옆을 지나던 길이라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뭉뭉히 들어찬 것을 보고 놀라서 그는 한 기둥 뒤로 몸을 감췄다. 왜 그가 여기에 온 것일까? 그는 자문했다. 하여간 그가 여기에 온 것은, 여기서는 몇분간이나마 그 무엇으로 그를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그 시간들이 아무것에도 인도해주지 않는다. 그렇다, <밖에서는 시간이 아무 것에도 인도해 주지 않는다.> 그는 또한 자기자신을 다시 알아볼 필요를 느끼고, 정신적인 훈련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좋다는 생각에서 신앙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에게 타일렸다. <만일 내가 자신을 설명할 어떤 방안을 그리고 자신을 집중시킬 어떤 방안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나에게서는 진실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다음 그는 피로를 느끼고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않을 것 아닌가.>)

이와같은 방향,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채 講論에 귀를 기울인 베르니는, 뿔 꼬로델이 1886년 降誕際때 노트르담성당에서 군중들과 섞이며 성가대의 입구 두번째 기둥 근처 오른쪽 香房 옆에 서서 영혼을 뺏기는 듯한 환희를 맛보았던 것⁴³⁾에 反해 베르니는 그러한 기쁨을 커니와 <철저한 절망의 부르짖음> un cris parfaitement désespéré⁴⁴⁾만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설교의 장면 설정에서 썬텍스는 한가지 중요한 제시를 하고 있다. 그것은 썬텍스 자신의 종교를 구축하는데 있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인간의 종교>이다. 이것은 썬텍스가 앞으로의 작품들에서 깊이 추구할 命題이자 그의 휴머니즘이기도 하다. 이에 관한 설교의 내용과 베르니의 심경을 보면,

"Vos efforts vains de chaque jour, qui vous épuisent, venez à moi: je leur donnerai un sens, ils bâtiront dans votre coeur, j'en ferai une chose humaine."

La parole entre dans la foule. Bernis n'entend plus la parole, mais quelque chose qui est en elle et qui revient comme un motif:

". . . J'en ferai une chose humaine."

Il s'inquiète.

"De vos amours, sèches, cruelles et désespérées, amants d'aujourd'hui, venez à moi, je ferai une chose humaine."

"De votre hâte vers la chair, de votre retour triste, venez à moi, je ferai une chose humaine . . ."

(.)

42) Ibid., p. 44

43) Paul Claudel: Ma Conversion, dans Contacts et circonstances, Gallimand, 1947, p. 13

44) Courrier Sud, p. 47

45) Ibid., p. 46

“Je suis le seul qui puisse rendre l’homme à lui-même.”⁴⁵⁾

「날마다 한결같은 그대들의 헛된 노력은 그대들의 기력만 쇠진시키리로다. 내게로 오라, 내 그대들의 노력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리라. 그 노력은 그대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고, 나는 그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리라.」

설교는 균중 속으로 파고든다. 베르니는 더 이상 듣고있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있는 그 무엇이 하나의 動機처럼 되살아난다. <…나는 그것으로 인간적인 것을 만들리라>라고. 그래서 그는 불만해진다.

「오늘의 연인들이여 내게로 오라, 그대들의 메마르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랑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리라.」

「내게로 오라, 그대들의 肉慾을 향한 서두름이나 그대들의 서글픈 歸路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리라.」

(……)

「나는 인간을 자기자신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로다.」

베르니가 성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것은 神에 관한 말을 듣기 위함이었고 神을 만나고 자하는 기대에서 였다. 그런데 사제는 설교의 마지막을 인간에 관한 것으로 종결짓고 있지 않은가. 결국 베르니가 이 설교에서 얻은 결론은 <神은 사람들의 사랑이 발동하여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자신이 만들어낸 神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르니의 마음 속에는 이미 기독교가 志向하는 바 神의 수직적인 초월성이 엷어지고 그 대신 초탈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성취할 수 있는 수평적인 초월성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면 <자기의 神>은 무엇일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기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 무엇일까? 「진주에 손을 댈 수는 있어도 그것을 햇빛 아래 끄집어낼 수가 없는 印度의 잠수부여, 그대는 지금 어디서 그 보물을 찾아내려 하는가?」⁴⁶⁾ 이것은 생텍스의 고뇌다.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긴 방향을 끝내고 이제야 희미하게나마 윤곽을 확실히한 <자기의 보물>, 그것을 그는 다음 작품 「야간비행」과 「인간의 대지」에서 끌어내고 있다.

「야간비행」 속의 Rivière 나 「인간의 대지」 속의 Mermoz 와 Guillaumet, 그리고 Saint-Exupéry 그 자신이 보여주는 비행기와 肉身을 연장으로한 <行動에 意味를 부여한 것>이 그것이다. 그에게 있어 行動은 절대이며, 人生의 의미 또한 냉혹한 행동에의 사랑에서 얻어지는 행복에 두고 있다. Rivière 로 하여금 생텍스는 「인간의 生命을 값으로 따질 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그것은 무엇일까?」⁴⁷⁾ 하고 묻게하는데, 이에대한 해답으로 곧이어 그는 「그들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⁴⁸⁾ 라고 말하고 있다. 수행해야할 사업 속에는 자기의 宗教가 약속하는 불멸성이 있는 것이고 「행동은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⁴⁹⁾ 이니까 저녁 식탁, 황금빛 램프 아래 머리

46) Ibid., p. 68

47) Vol de Nuib, p. 120

48) Ibid., p. 121

49) Ibid., p. 130

를 마주하고 앉은 인간의 행복도 늙음과 病死는 언젠가 이를 무참하게 깨트려버릴 것이지만 인간의 肉身은 죽어도 그 육신과 交換된 사업은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다. 생텍스의 <인간>⁵⁰⁾은 神을 갖지않는 새로운 文明의 創造者인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기독교의 神같은 것은 없다. 그에게 神의 모습이 있다면 개척자 또는 발명가의 모습과 예술가의 모습에서다.

6. 神에의 향수

그러나 이렇듯 자기자신의 바이블을 만들 수 있는 생텍스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적 인 神에의 향수가 항상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手帖」기타 여러 작품에서 읽을 수 있다. 우선 「전시조종사」 가운데서 그 한 예를 찾아보면,

Dans le dominicain qui prie il est une présence dense. Cet homme n'est jamais plus homme que quand le voilà prosterné et immobile. Dans Pasteur qui retient son souffle au-dessus de son microscope, il est une présence dense. Pasteur n'est jamais plus homme que quand il observe. Alors il progresse. Alors il se hâte. Alors il avance à pas de géant, bien qu'immobile, et il découvre l'étendue. Ainsi Cézanne immobile et muet, en face de son ébauche, est d'une présence inestimable. Il n'est jamais plus homme que lorsqu'il se tait, éprouver et juge, Alors sa toile lui devient plus vaste que la mer.⁵¹⁾

(기도하고 있는 도미니크 修道僧에게는 밀도 짙은 現存이 있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엎드려 꼼짝않고 있을 때 보다 더 인간다워보인 적은 없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숨을 죽이고 있는 빠스퇴르에게도 밀도 짙은 現存이 있는 것이다. 빠스퇴르는 현미경을 관찰하고 있을 때 보다 더 사람다워 보인 적은 없다. 그 순간 그는 전진한다. 그 순간 그는 바빠진다. 그 순간 그는 비록 부동의 자세이건만 巨人의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며 空間의 넓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잔느 또한 스켓치를 앞에 놓고 묵묵히 부동의 자세일때 한없이 귀중한 現存이 된다. 그가 말없이 느끼고 관찰할 때 보다 사람다워 보인 적은 없다. 그때 그의 캔버스는 바다 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것이다.)

생텍스의 傳記作家 Georges Pélissier가 쓴 「생텍쥐페리의 다섯개의 얼굴」⁵²⁾에 페리시예와 생텍스가 1938년으로 추정되는 <파리의 하룻밤>을 같이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카페에서, 이어서 센느의 右岸과 左岸을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택시 안에서 그날 밤 생텍스는 많은 이야기를 지껄여댔다.」 페리시예가 그날 밤의 생텍스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다음 글을 보면 역시 神에의 향수, 특히 도미니크 수도승에의 향수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즉 「그는 불안 때문에 多辯해진 탓인지 자기의 심중을 고백했다. 앙뜨완느는 나에게 절대적인 갈증과 그의 神의 탐구에 대해서 말했다. <만일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면 도미니크 會 수도승이 되고싶군. 하지만 신앙이 없으니 도미니크 會에 들어갈 수는 없지. 그런 짓은 사기행위니까. 그래서 나는 절망이야.>」

50) <人間的 生成>項에서 논술한 Homme 참조

51) Pilote de Guerre, p. 314

52) George Pélissier: Les cinq visages de Saint-Exupéry, Flammarion, 1951, pp. 127-128

또 한 사람의 傳記作家 Renbé Zeller 역시 1938년에 쾨팅겐이 특히 신뢰하고 있는 어떤 수도승을 방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쾨팅겐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구원을 기대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방도시를 향해 기차를 탔다. 그 수도승은 스스로 운전하는 검소한 車로 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對話는 바로 시작되었다. 밤 9시에 도착하여 비행사는 아침 6시에 이별을 고했다. 밤 새도록 神에 대한 것이 화제였다.⁵³⁾ 우리는 르네 쾨팅겐을 통해서 수도승이 쾨팅겐의 조심스런 태도에 감동하고 그 고뇌의 깊이에 마음이 사로잡혔었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Pierre chevrier 덕분에 또 귀중한 자료를 접할 수가 있다.⁵⁴⁾ 그것은 쾨팅겐이 어느날 오후 리용의 Fourvière 성당을 방문했을 때를 생각하며 쓴 편지의 한 귀절이다. 「나는 완전히 한 척의 배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칸토스 브라노스 그레리오 聖歌, 바다, 바람을 잔뜩 안은 돛대, 그리고 나는 놀랄만한 확신을 얻었다. 그것은 배처럼 어디를 향해서 똑바로 갔다. 內陳에는 승무원 그리고 나는 승객이다. 그렇다. 정말이지 뛰어난 승객이다. 나는 밀항자처럼 스며드는 것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감동에 넘치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명증성에 대해 눈부신 생각을 갖는 것이다.」 역시 슈브리에게 한 다른 편지 안에서 쾨팅겐은 무언가 자기가 신앙을 갖지않은 것에 놀라고 있는 기분을 고백하고 있다. 「희망도 없이 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딱 어울린다. 소렘 Soleme 와 그레고리오성가.」

이상의 모든 자료는 당시의 쾨팅겐이 그로서는 아주 성실하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날에 그를 맞이한 교회의 문지방을 또한번 지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쾨팅겐 자신 또한 「진리에 봉사하라고 만든 말에 매혹되고 싶다고 바라면서 교회 입구에서 당황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을 그러한 사람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⁵⁵⁾

그가 여기서 괴로워한 것은, 특히 어떤점에서는 <믿는 행위의 행복>을 소유한 자를 부러워한 것, 이것은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手帖」에서 「인간에 의하여 상처입은, 公衆에 의하여 상처입은——게다가 오! 주여! 당신에 의하여 상처입게 되다니!」⁵⁶⁾ 라는 애매하고 알기 어려운 단장 안에서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과연 크리스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의 지극히 상처입기 쉬운 마음 속에 크리스트 교회에 대한 향수가 이따금 이전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무렵, 그러니까 1938년 과테말라에서 그의 다섯번째에 해당하는 비행기 사고로 두게골 파상이라는 重態를 입고 뉴욕에서 가료중, 회복기를 틈타 쓴 명작 「인간의 대지」에서도 그의

53) René Zeller: L'homme et le navire de Saint-Exupéry, Alsatia, 1951, p. 143

54) André Deveau: Les écrivains devant Dieu, 민회식 譯, 청하, p. 73

55) Ibid.

56) Carnets, p. 35

향수는 언급되고 있다. 리비 사막의 모래언덕을 들이박고 추락했던 그의 네번째 사고로 동료 Prévot와 함께 熱砂의 한복판에서 갈증과 기아 속 살길을 찾아 사흘간을 헤매는 가운데 나타나는 신기루들 중의 하나——그것을 도미니크 수도원의 십자가다. 「나의 종교적인 건물이 바로 저기에 있다! 수도승들이 난파자들을 부르기 위해 언덕 위에 커다란 십자가를 세워 놓았다! 나는 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저 부지런한 도미니크派 쪽으로……그들은 네모난 빨간 벽돌이 깔린 시원하고 아름다운 부엌을 가지고 있고 마당에는 녹슨 훌륭한 펌프를 가지고 있다. 그 녹슨 펌프 밑에는 그것은 영원한 우물이다! (……) 내가 커다란 종을 울리기만 하면!……문지기가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나한테 소리치겠지. <당신은 神의 使者입니다!>라고. 그리고는 모든 수도승들을 불러모으겠지. 그러면 그들은 엎치락 뒤치락 몰려와 나를 마치 불쌍한 어린애 처럼 맞아주겠지. 그들은 나를 부엌으로 떠다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테지, <잠깐만, 잠깐만, 내 아들이……우리가 영원한 우물로 갔다오마>……라고. 그러면 나는 행복에 넘쳐 몸을 떨테지.」⁵⁷⁾

1937—8년 당시 생텍스는 이와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熟考하고 번민하였다. 나이 설흔 일곱 여덟이라면 작가로서나 하나의 인생으로서나 成熟期에 이르른 시기다. 그러면서도 생텍스는 끝내 기독교를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애다 城砦를 짓고 말았다. 이와같은 방황과 기독교 神의 향수, 그리고 거부하는 그의 다음 작품들 「전시 조종사」 「어느 인질에게 보내는 편지」 「城砦」 그리고 그후의 「手帖」 등 메모들에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가 기독교 특히는 엄격한 儀式과 禁慾의 도미니크派를 그렇듯 思念하면서도 끝내 거기에 歸依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앞서 필자는, 종교적 신앙과 과학적 진리 사이의 不一致한 점과 인간을 信者와 非信者로 뚜렷이 구분하는데서 오는 생텍스의 불만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그밖에도 「우리는 전설과 진실을, 자료와 가설을 항상 구별하도록 되어있는데」⁵⁸⁾ 「카토릭은 성서 비판을 무시하려고 한다.」⁵⁹⁾ 게다가 사고를 존중하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논증의 회피」⁶⁰⁾에 근거를 둔 知的인 곡예에 탐닉하고 있다는 불만, 다만 인류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불만이다. 왜냐하면 이 두개의 그룹사이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차라리 경계선의 어느 쪽에나 두 개의 그룹의 인간이 분류되어 있기」⁶¹⁾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카토릭을 향해서이지만 생텍스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도 공감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숨김없이 토로하고 있다. 말하자면 생텍스는 기독교 전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1942년에 발표된 二次大戰 參戰記이자 그의 隨想錄인 「전투조종사」는 그와 神과의 관계에

57) Terre des Hommes, p.p. 228-229

58) Carnets, p. 34

59) Ibid., p. 71

60) Ibid., p. 36

61) Ibid., p. 33

있어 새로운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前作 「인간의 대지」 券末에 강조되고 있는 名句 「오직 精神만이 진흙 속으로 불어넣어질 때 〈人間〉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의 精神⁶²⁾을 내세우고 있다. 전쟁은 그에게 있어 대단히 중대한 文明의 위기로 비쳤던 것이다. 「하나의 문명이란 몇세기 동안에 서서히 얻어진 신념, 관습, 지식의 유산인 것이다. 이것이 때로 논리로는 정당화되기 어려울지라도, 도로가 항상 사람을 어디론가 데려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해명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文明의 內的인 확산을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文明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고 썩텍스는 「정신의 공동체만은 파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⁶³⁾고 말하고 있다. 이를 다시 말해 썩텍스는 「상속인이 없다면 정신의 유산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정신이 멸망하면 상속인은 무엇에 봉사할 것인가?」⁶⁴⁾고 묻는다. 뛰어난 文明은 知性을 초월하는 정신에 의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썩텍스는 항상 지성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지성은 너무나 近視眠的이라 당장에 보이지 않는 먼 목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내일의 文明은 〈인간〉⁶⁵⁾을 神과 흡사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Il est une commune mesure aux qualités que je souhaite aux hommes de ma civilisation.
Il est une clef de voûte à la communauté particulière qu'ils doivent fonder.⁶⁶⁾

(나의 文明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바라는 資質에는 하나의 공통된 尺度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건설해야하는 특수한 공동체가 천국에 이르는 하나의 열쇠라는 것이다.)

천국에 이르는 열쇠는 신앙이고, 특수한 공동체는 遠大한 목표를 향해 나란히 마주보는 〈人間〉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의 종교는 〈인간〉에의 신앙인 것이고 그것은 미래의 종교로 여겨진다. 「전시조종사」에서 썩텍스는 〈인간〉에의 존엄을 수없이 강론하고 있다. 그의 文明이 神에 의지하고 있는 동안 그의 文明은 사람의 마음 속에 神을 설정하는 城砦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우리들 인간이 해야할 일은 자신의 내부에 神의 방문을 맞이할 수 있는 집을 세우는데 있다. 「나는 네 마음 속에 한 채 집을 세우기를 강요한다. 집을 짓고나면 너의 마음을 태우려는 거주자가 온다」⁶⁷⁾ 썩텍스가 말하는 우리들 인간은 그의 神 즉 〈人間〉을 받아들일 神殿을 싫증없이 이룩하는 자들이다. 그 〈人間〉은 죽음과의 교환에 의해서 〈영원〉이 될 수 있다. 죽음은 탄생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豫象이며 生成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급회전이다. 죽음은 〈脫皮〉이며 모든 탈피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보다 높은 단계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다. 「번데기를 만들 때 유충은 죽는다. 종자를 낳을 때 식물은 시든다.」⁶⁸⁾ 썩텍스

62) 〈人間의 生成〉項에서 논술한 Dieu나 Homme처럼 이 精神 또한 大文字 E로 시작하는 Esprit라 표기 해서 3者의 同位를 주장한 듯

63) Lettre à sa mère, p. 219

64) Saint-Exupéry: Un sens à la vie, p. 211

65) 〈人間의 生成〉項에서 논술한 Homme 참조

66) Pilote de Guerre, p. 371

67) Citadelle, p. 901

68) Ibid., p. 570

는 그 자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몇번이고 죽음과 대결한 사람이기에 죽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자격이 있지만 그는 죽음 속에서 비극적인 것을 보는 것에는 반대다. 「어린왕자」가 終章에서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⁶⁹⁾라고 말하지만 우리들 모든 인간은 이와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다. 생애를 통해서 추구한 완성 속에 합입하는 것이다. 인간의 죽음은 피로운 것이 아니라 「감탄해야할」⁷⁰⁾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그가 「城砦」의 205章에서 「나는 이미 이 나라의 주민이 아니다(Je ne suis plus de cette patrie)」⁷¹⁾라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3페이지에 걸쳐 규칙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진심을 충분히 표출해 보이고 있어 의미심장하다.

III

지금까지 우리가 모색해온 생텍스의 人間觀은 한마디로 희생을 전제로 하는 〈人間〉의 生成이었고, 그의 신앙 또한 이 〈人間〉이었다. 召命을 지닌 職分métier이 묶어주는 동료간의 兄弟愛가 人間關係를 이룩하고, 그 인간의 공동체가 〈영원한 것의 창조〉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殺身成仁할 정신을 가졌을때 각자의 個體 속에 胎動하는 새로운 自我, 그것이 〈人間〉임을 알아냈다. 그 〈人間〉은 또한 한 사람의 매몰된 鑛夫를 구해내기 위하여 백명의 광부가 목숨을 거는 높은 人間性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를 두고 휴머니스트라 일컫기도 하고 모달리스트라 부르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생텍스가 〈한 사람의 매몰된 광부……백명의 광부〉云云하는 표현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羊을 찾아서 아흔아홉마리의 羊을 산 위에 두고 간다.〉는 기독교 사상과 이마주를 같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유년시절 이래 44세를 일기로 하늘에서 散化하기까지 그의 內面의 生涯는 기독교 神에의 갈등으로 점철된 것이라해서 잘못된 지적은 아닐 것이다. 학생시절에는 기독교 신앙 속에서 성장했으나 그다음에는 회의와 방황, 그리고 발견한 자기의 神 즉 〈人間〉, 그러나 말년의 未完의 大作「城砦」속에서는 그가 기독교 신앙에로의 복귀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짐작을 수없이 발견하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끊임없이 기독교적인 神에의 향수를 지녀왔고 기독교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기를 열망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神이라 인정하는 것은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생텍스는 기독교의 신학이나 형이상학과, 현대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神과의 사이에 어떤 절충을 찾아내려고 모색했으나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봄이 옳을 것 같다.

69) Le Petit Prince, p. 496

70) Citadelle, p. 531

71) Ibid., pp. 955-957

Bibliographies

- Saint-Exupéry: “Vol de Nuit”, “Terre des Hommes”, “Pilote de Guerre”, “Le Petit Prince”, “Citadelle”, “Carnets”, “Lettre à sa mère”, “Lettres de jeunesse”, “Courrier Sud”, “Un sens à la vie”.
- Eric Deschodt, Saint-Exupéry (biographie), J.C.Lattès, Paris, 1980.
- Luc Estang, Saint-Exupéry (par lui-même), Seuil, Paris, 1956.
- Serge Losic, L'idéal humain de Saint-Exupéry, A.G.Nizet, Paris 1965.
- Cahiers Saint-Exupéry 2, Gallimard, Paris, 1981.
- Gisèle d'Assailly: “En parlant de Saint-Exupéry”, La Gazette des Lettres, 21 décembre 1946.
- Paul Claudel: Ma Conversion, Gallimard, 1947.
- George Péliissier: Les cinq visages de Saint-Exupéry, Flammarion, Paris, 1951.
- Renée Zeller: L'homme et le navire de Saint-Exupéry, Alsatia, Paris, 1951.
- André Deveau: Les écrivains devant Dieu. 민회식譯, 청하, 서울, 1983.